독도를 지키려는

독도소식지

제 3 호

발행처: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2010년 9월13일 편집 독도 이상훈
사무실:부산 중구 중앙동3가 14-1 2층 제일은행 옆)
사무실:T) 070-8133-9498 F) 051) 469-8014
대 표 : ds5ean@paran.com HP. 010-6504-6510

독도소식지 3호를 내면서

독도 다른 사람들은 빼앗기면 안 되지 하면서도 독도를 지키려 나서지는 못 한다. 방법도 모른다. 방법이 없으면 지키지 못한다. 본인은 독도 지키기에 이론과 논리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11년 전인 2000년 9월 말부터 독도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소식지를 자주 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2010년은 일본의 독도침략을 더욱 거세게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해로 한다는 목표다. 국민여러분 독도사수연합회원이 되시기 부탁 하면서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 편집자

MB, "독도 기다려 달라" 요미우리 항소 재판 열리다

2차 심리는 10월 6일로 (경기북부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기다려 달라" 요미우리 보도 항소심이 1일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4월 7일 1심에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권한이 없다고 기각 판결은 받고, 시민소송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다.

〈한일정상회담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항소심에서 요미우리 측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소송할 권한이 없고. 만일 이를 인정 할 경우 전 국민에게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의 배상 책임이 너무 크다며 시민 소송단의 소송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론 하였다. 대표 소송인 백은종씨는 극우신문 요미우리의 MB, "독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 보도에 대해서 훗날 일본의 독도 강제점령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진실을 가려 달라고 강력하게 재판부에 요청 하였다. | 기사입력: 2010/09/01 [15:24]

일(日本) 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여야 반발

일본이 금년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표기를 유지하는 내용의 방위백서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여야당은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은 일본은 물론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기존 입장 그대로 독도는 엄연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우리 국토인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한·일 병합 100주년을 맞아 일본이 사과를 했음에도 진정성 있게 사과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불과 얼마 전에 일본 총리가 불행한 한·일 과거사에 대한 사죄 표명을 해놓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일본은 독도문제에 관한 한 강한 입장을 견지할 것" 이라며 " 정부가 '조용한 외교'로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현 정부가 왜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 '조용한 외교'를 하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독도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정작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인터넷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수호 자전거타기

박남우 자문 독도수호와 자전거 타기운동을 전국 일주 떠나는 환송식 후 간부회원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성명서

일본은 2005년부터 6번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침략근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한 달 전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한 사과 성명에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던 것은 입발림에 불과했던 셈이다.
일본 시마네현 지방 정부가 대한제국이 힘이 없어 항의도 못할 1905년 임의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고,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안용복 사건 이후 1696년 1월 28일 도해금지령을 내리고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출어(出漁)를 금지 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1837년 에쯔야 하피몽 이란 사람이 죽도(당시울릉도)는 안 가고 마츠시마(당시독도)만 갔다고 증언 했는데도 사형을 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877년 일본 태정관문서에 죽도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 없는 땅 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 하라.
일본 시민단체와 한국 시민단체가 국제역사학자들 모시고 학술회의를 하자. 일본은 한.일 공동 번영을 위하여 과거의 침략근성을 버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당장 삭제 하고 한국 영토로 인정 하라. 한.일 친선의 길이다.

2010년 9월 12일 | 독도사수연합회

독도결의안,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다니.." 독도 특위 의원님들 왜 그래요?

"독도문제와 한일회담에 관련된 비공개 문서의 공개를 촉구하는 독도 결의안의 채택이 무산됐다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의원 정족수 미달이다." 한·일 간의 과거사 정리와 함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독도 특위는 한일회담 관련 문서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독도 부분의 공개를 촉구하는 '독도결의안'을 상정한 바 있다. 우 대변인은 "독도결의안의 채택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일임이 명백하다"면서 "그런데 결의안이, 특위 위원 18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함에도, 7명의 의원만이 참석해 채택이 무산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위원 10명 가운데 고작 3명만 회의에 참석했으며 조전혁, 홍정욱 의원 등이 지역구 일정 등을 핑계로 사전 통보도 없이 불참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관련 부처의 장차관 모두 참석치 않았다. 불참의원들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필요에 따라 입맛에 맞게 이용만 해먹고 정작 책임을 다해야 할 때는 등한시 하는 안일한 태도로는 일본의 집요한 독도 침탈행위를 막을 수 없다"

| 인터넷뉴스 요약

스포츠 응원 보다는 독도 영토 응원을 더 하자!

부산 앞 바다에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이 고래는 부산 시민들의 고래입니다, 시민 모두가 단결하여 고래를 잡아야 배고픔을 면 할 수 있습니다, 고래는 누가 잡든지 공동 분배가 됩니다, 방송에서 고래잡이 하러 나오라고 했지만 방송을 듣고도 안 나오는 사람과 못 나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고래를 못 잡았습니다. 부산시민들은 배고픔이 더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장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까? 우리국민들이 축구나 야구를 하면 3만 관중이 응원을 합니다. 독도를 지키자는 행사에는 100/1도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단결하여 독도를 지키면 독도는 지켜 질수 있는데 독도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독도를 지키려고 나서는 분은 너무나 적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고래를 놓친 것과 같습니다.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면 영원한 우리 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독도를 지키려는 노력은 서명운동 하는 것. 후원금를 내는 것. 독도행사에 참여 하는 것. 사이버 독도운동 하는 것 회원이 되는 것. 둥이 응원입니다.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차자 보시면 독도 주변 바다는 공동수역이 되어있고 독도는 섬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사회의 지도에는 섬의 이름도 일본이 주장 하는 다케시마 이며 일본의 등기서류에는 완전한 일본 땅이 되어있습니다, 국제재판을 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하도록 만들자면 독도연구를 많이 하고 자유입도와 주거자유 되어야 하며 관광지 개발을 하여야 하며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를 최고 유공자로 모셔야하며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더욱 유리 할 것입니다,

|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대 에서 서명운동 중입니다")

뉴욕 독도광고 사라졌다… 왜

정부 "분쟁지 이미지만 부각" 못 하라고?

미국에서 독도 한국 영토라고 광고 하는 것을 우리정부가 분쟁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 한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 하는데 밀려서 독도주변 수역도 공동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것으로 주장 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진짜로 일본 영토로 알 것이다. 독도를 지키려면 독도를 우리 것으로 주장 하여야 한다. 가만있으면 일본의 주장을 묵인 하는 결과가 된다. 우리 것으로 주장하여 국제 사회가 우리 땅으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이글은 독도사수대 카페 뉴스 게시판에 있는 것을 요약 하여 올린 것이며 좌측에 있는 뉴스2개도 지면 관계상 요약 하여 올린 것이다. | 독도 이상훈

우리정부 강력항의만 할것이 아니라.
단호하고도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펴야 한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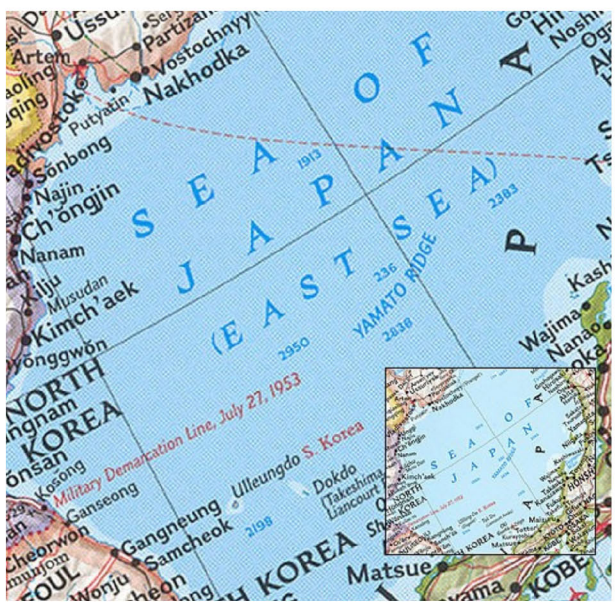
세계지도(외국)에 '독도. 동해' 단독표기전무

외교부, 각국 발간 세계지도 700건 조사

각국에서 발간된 세계지도 가운데 독도'나 동해'라는 명칭이 단독 표기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8일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지난 7월28일 독도 TF(태스크포스)를 구성, 146개 재외공관에서 약 700건의 세계지도를 취합. 분석한 결과, 독도가 그려진 확대축적지도는 20%에 불과했고, 그나마 '독도'라는 이름이 단독으로 표기된 지도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독도'가 표기된 지도 중에서는 독도-다케시마'로 병기된 것이 가장 많았고,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들이 만든 지도는 대부분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독도-리앙쿠르암'으로 병기된 지도는 10여개,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된 지도도 10개 정도였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권 의원은 외교부가 이 같은 독도 표기 조사현황이 문서로 공개 되는 것을 꺼려 구두로만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작년 상반기 75개국에서 발간된 353개 지도를 대상으로 동해' 수역 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해-일본해'를 병기한 지도는 전체의 23.8%, 일본해 단독'표기는 74.2%, 무 표기는 2%로 파악됐고 동해' 단독 표기는 전무했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권 의원은 "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펼치는 동안 일본의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묵인해주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제 국제무대에서 독도와 동해에 대한 일본의 신제국주의적인 야욕을 저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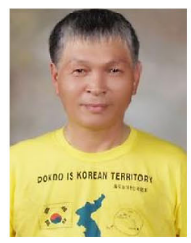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 09. 08 15:08

이상헌기자 oneybee@yna.co.kr



독도 를 빛내 주시는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

독도사수연합회 견인하고 (도움 주시는 분들)

고 문	고 문	고 문	자 문	자 문	자 문	회 장	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정승백	이은규	정상진	문병준	박남우	이원수	이상훈	이후근	문미숙	배한조
부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부산지회장	충북지회장	서울지회장	홍보대사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변주인	김영희	윤숭태	조남용	최원호	가수 서희	안종옥	한동락	이기철	이광호

행동하는 독도사수대 활동하는 독도사수연합회원!

현직 판사, 법정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 출간

독도 소송은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일까'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근무하는 정판사가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소송을 주제로 한 법정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환'이란 필명으로 출간한 책은 독도 소송을 위해 필요한 양 국간의 합의를 우리나라가 해주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우리나라가 소송에 응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던져준다. 이 책은 법정소설이면서도 역사추리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설 속에서 유명 소설가 이형준은 '가락국기'원본의 행방을 감춘 채 일본으로 건너간다. '가락국기'는 삼국유사에 일부만이 소개돼 있을 뿐 원본은 현재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락국기'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원 요원인 서준이 일본으로 파견되지만 이형준은 서준의 눈앞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돼 살해된다. 이형준은 사망 직전 외교관인 딸 도하에게 '가락국기'의 위치를 알리는 암호가 담긴 '사월의 노래' 노래 악보를 전송 한다. 이후 도하와 약혼자인 김은성 검사 등이 악보 암호를 하나씩 풀어가는 역사 추리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일간의 법정 공방과 함께 이 소설의 백미를 이룬다. 작가는 소설에서 국제 법을 전공한 판사답게 국제소송의 절차와 변론 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한국 측 변론자인 여주인공 이도하와 일본 측 변론자인 스즈키 카이토가 국제법정에서 벌이는 논쟁은 실제 눈앞에서 재판을 보는 것처럼 독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정 판사는 "판사와 소설가는 근본적인 면에서 닮았습니다. 재판을 하는 것은 숱한 거짓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고 소설을 쓰는 것은 허구를 통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둘 다 인간 세상의 진실을 찾는 작업이고 그래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작가는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국제 법 석사 학위를 받은 뒤 경북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도 받았고 이후 국방부에서 2년간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관으로 근무했다. 법무관 시절 국회나 외교부 또는 다른 나라 대사관과 접촉하면서 독도와 관련해 경험한 것들과 지난 5년간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이 소설에 모두 녹여내 내용에 한층 무게가 실린다. 정식등단은 하지 않았지만 사법연수원 시절 이미 출간한 '사법연수생의 자장면 비비는 법'이란 장편소설은 라디오 극화로 방송되고 드라마 판권으로 팔릴 만큼 글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독도를 놓고 일본과 전쟁 가능성보다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송 준비를 촉구하기 위해 소설을 썼다"며 "국민들에게 독도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리고 싶었고 이 소설을 읽는 모든 사람이 상당한 독도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터넷 뉴스펌)

법원, 외교마찰 빚지 않도록 조정자 역할 수행 필요

일본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우리정부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못 하는 것을 비영리 민간단체가 하려고 외교통상부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하니 주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교통상부 장관이 거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외교통상부에서 외교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 안하면 어느 부처가 해야 하는가?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김판사님 잘한 판결로 본다. 일 '야스쿠니 참배 반대 공동행동 한국위원회(공동행동)'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을 하는데 온 국민이 참여가 필요 할 것이다. "공동행동의 주된 공익활동은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한 일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민간 외교활동"이라며 이를 주관하는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 봐야 하므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 신사참배를 막아내야 한다.

공동행동 화이팅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독도마트 http://dokdomart.com

"독도는 우리 땅" 日대사에게 돌 던진 김기종 대표 집행유예
"국가가 대응 못한다면, 민간단체가 항의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기종님은 독도 문제 등 수차례 서면으로 일본 대사에게 질의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7월 7일 프레스 센타에서 시게이 일본대사의 강연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항의하는 의미로 오른쪽 주머니에 동도, 왼쪽 주머니에 서도를 상징하는 작은 돌맹이 두개를 소지하고 강연을 듣던 중 시게이 일본대사의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일이 공동으로 대응 하자는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질의 신청을 하였다. 이에 첫번째 질의자로 선정된 김기종님은 "일본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무었을 했느냐" 북한을 제외한 한일 공동대응으로 동북아 평화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중 주최측이 강제로 마이크를 빼앗자 "독도 가져가라" 소리치며 독도를 상징하는 동도와 서도를 단상에 던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김기종님의 말씀은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일본의 독도 자국영토 표기로 시작된 독도 침탈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독도를 상징하는 동도와 서도 세멘트를 던졌다. 고 한다. 독도지킴이가 가지고 있는 일본의 침탈에 대한 가슴속의 분노였습니다. 온 국민이 독도지킴이가 되어서 독도 지키려 노력 해야 한다.

"변호인단 외국사절 폭행죄 인정 않아"
"검사 김씨 중형 불가피. 징역 4년구형"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김기종 대장이 일본대사 면전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져 구속 수감이 되었다가. 제가 면회를 할 때도 당당하게 일본에 대항 한다는 김대표 저는 애국심에 불타는 심정에 던졌다고 봅니다. 검사구형 징역4년을 받고 박찬종 변호사와 황상현 변호사가 무료 변호를 맡았다.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8월 30일 석방 되었습니다. 박변호사님은 김기종 대표가 한국 땅인 독도 일본영토로 주장하는데 일어난 세멘트 덩어리의 투척은 일본의 과실에 대한 상해 행위로 입장을 밝혔다. | (편집자)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http://woorimadang.kr
김기종 대장 E-mail : wmd@naver.com

김기종은 행동했다! 너도 나도 행동하고, 실천하자!

독도지킴에 관심을 가지고 이리 와서 보세요!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은 독도사수대(다음카페)에서 내용을 많이 보시고 공감이 가시면 독도 지키기 서명 용지를 다운 받아서 서명운동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이 가지 않는 분은 무엇이 잘못 되었다는 충고의 말씀을 글로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뒷북을 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합시다. 독도에 사람을 못 살게 하는 법을 고쳐서 살게 하자는 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독도에 방파제를 만들려고 하였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 상한다고 외교통상부는 일본을 자극 한다고 방파제를 못 만들게 한다는 인터넷 뉴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과 안사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합니까? 독도 지키자는 사람들이 10만 명씩 서명을 받는다면 우리 국민들 과반수는 서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 땅 우리가 살기 위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대 회원일동

독도 사수연합회는 외친다.

국민여러분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등기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근거는 많으나 일본의 주장에 밀려서 바다도 공동수역이 되고 지도는 다케시마로 표시 됩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한국 땅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1면 日 독도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기록 한다 함)

日, 무인도 국유화대상서 독도 제외 "이미 日정부 재산 등록"

[동아일보] 2010년 08월 23일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무인도 등 25개 도서지역을 국유화하고 주변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독도는 제외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미 일본 정부의 재산으로 돼 있어 새삼스럽게 국유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도서지역 국유화 조치는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저조선(低潮線)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 법'에 따른 것으로 일본이 독점적으로 어업자원과 해저광물을 개발할 수 있는 EEZ를 보전하기 위해 수역을 측정하는 기점 지역을 국유재산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도는 이번의 국유화 및 보전지역 조치에서 제외된다. 독도는 한국이 지배하고 있어 수역 측정 등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데다 일본 주장에 따르면 이미 일본 정부의 재산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 도쿄 = 윤종구 특파원

후원사

뉴 동부산 고속 관광
DS5NOG 박 용 규
HP: 011-863-4220
수학여행전문
최선을 다하는.....
뉴 동부산 고속 관광
박용규DS5NOG

신우정공
대표 신 재 식 (용기)
부산광역시금정구회동311-4
TEL:(051)528-8839
FAX:(051-558-8818
H P:011-558-4198
E-mail:sw8818@chol.com
(call sing: HL5JQN)
* 사출금형 * 건축자재
* 특수금형 * 함마톤 난간대
* 나이케스팅 * 베란다
* 금형설계 * 계단.헨드레일.관련부품

독도NGO포럼
cafe.naver.com/dokdongo
독도시민단체
대표자들의모임

독 도 개 발 (K.C인력협력체)
◈건설 · 용역 전문업체◈
부산건설용역협회장
대 표 윤 기 태 (숭 태)
I ♥ DOKDO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사수연합회 부산지회장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4-1(2층)
TEL:070-8133-9498
FAX:051-469-8014
H . P:010-5586-9494
건물철거·건물유지보수·인테리어·리모델링·주택수리

독도소식지 3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지금까지 편집이 잘 되지도 못 하고 내용도 충실히 하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한번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없고 민족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모두가 함께 못 사는 길이란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기적이 아니란 말은 못 하지만 나라를 위하여 노력 할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독도소식지를 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 않습니다.

독도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아 보실 분, 회원 가입 하실 분 http://cafe.daum.net/anadok, **독도행사에 참여 하실 분 도움 주실 분,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은 전화 010-6504-6510 연락바라며**

독도를 지키는데 후원 하실 분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이상훈 주소는 부산시해운대구 반여3동 1595-29번지 상정주택 401호 전화 051-782-9174 입니다. ..... 영토는 주장 하는자의 영토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독도정책 변경하면 '독도영유권' 논란 없어진다!